

교실 상황에서 영어 명사구의 초점 실현 양상*

Focus Realization of English Noun Phrases in the Classroom Situation

전 지 현** · 송 재 영** · 이 동 화** · 김 기 호**

Ji-Hyun Jun · Jae-Yung Song · Dong-Hwa Lee · Kee-Ho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cus realization of [Adjective+Noun] phrases which are used in English classroom situations. In order to examine this, two production and one perception experiments were designed. The noun phrases in the first two production experiments are divided into three pattern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focu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duction experiments is that in the first experiment the focused words are contextually given in the classroom situation, but in the second experiment they are presented in written form. We compare the native English teachers' focus realization of noun phrases with that of Korean teachers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onational phonology. In the perception test, we examine how the uttered sentences are perceived by English native speak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The results from the three experiments show that native English teachers' focus realization is quite consistent with informational structure. Also,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itch range of adjectives and nouns when the native speakers give pitch accents on the two content words, and the uttered sentences are mostly perceived as well as the speakers' intentions. As for Korean speakers, however, they usually focus only on the adjective or they focus on both the adjective and the noun, regardless of the relative informativeness of these words. From these findings, we can conclude that focus realization of Korean teachers is rather inconsistent with respect to informational structure when compared to that of native English teachers.

Keywords: Focus, Informational Structure, Pitch Accent, Pitch Range

1. 서론

초점(focus)은 정보구조(informational structure)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이 다루어진 주제이며, 본 논문 역시 정보구조와 관련해서 초점이 억양(intonation)이라는 운율적인 요소를 통해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를 하기 전

* 본 논문은 교육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사업-Brain Korea 21-핵심 분야'의 지원으로 연구된 것임.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에, 먼저 초점에 대한 기존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초점에 대한 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Halliday(1967)는 초점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초점이란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를 나타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란 선행 담화 문맥에서 대응어적으로(anaphorically) 또는 상황적으로(situationally) 복구가 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Jackendoff(1972)는 초점과 전제(presupposition)를 연관시켜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전제란 화자와 청자간에 공유된 정보를 뜻하며, 초점은 이러한 전제와 상대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즉 초점은 담화 문맥에서 화자와 청자간에 공유되지 않은 정보, 즉 비전제된(non-presupposed) 부분을 나타내게 된다. 두 입장을 정리하면, 결국 초점이란 담화에서 새롭게 등장하였거나 또는 청자가 이전의 발화에서 유추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이며, 전제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담화에서의 정보구조는 초점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교실 상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즉 수업 중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교실이라는 이미 어느 정도 전제된 상황에서 발화하게 된다. 또한 수업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시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발화 중에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문법 형태가 [형용사+명사]의 명사구이다. [형용사+명사]의 명사구에서 형용사나 명사는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여 초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교실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사들의 발화 중에서도 특히 [형용사+명사] 명사구의 초점 실현 양상을 전제 여부와 관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형용사, 명사 정보가 전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명사구를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영어 모국어 교사들과 한국인 교사들의 초점 실현 양상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본론의 실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구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은 크게 세 종류의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험 I]과 [실험 II]는 발화실험이며 [실험 III]은 인지실험이다. 그리고 [실험 I]에 포함된 명사구들은 초점 부여 위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명사가 이미 교실 상황을 통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용사에만 협의 초점(narrow focus)이 부여된 [명사구 유형 1], 형용사가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사에만 협의 초점이 부여된 [명사구 유형 2], 마지막으로 형용사와 명사 모두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 명사구 전체에 광의 초점(broad focus)이 오는 [명사구 유형 3]이 그것이다.

[실험 II] 역시 [실험 I]과 마찬가지로 세 유형의 명사구에 대한 초점 실현 양상을 살펴볼게 되는데, [실험 I]과의 차이점은 [실험 II]는 [실험 I]에서처럼 전제가 상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시된 실험 문장 내에서 명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 I]과 [실험 II]를 통해서는 상황적/명시적 전제가 초점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실험 III]에서는 [실험 I, II]를 통해 얻어진 모국어 영어 교사들과 한국인 영어 교사들의 발화를 영어 모국어 화자들과 한국인들이 각각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영어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실험 I

2.1 실험 목적

교실 수업을 통해 상황적으로 전제가 주어졌을 때 [형용사+명사]의 명사구의 초점 실현 양상을 영어 모국어 교사와 한국인 교사를 대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2.2 실험 대상 및 방법

실험 대상은 K 대학교에서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30, 40대의 영어 모국어 교사 3 명(남자 2 명 여자 1 명/ 미국인 2 명, 캐나다인 1 명)과 현재 A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20대의 한국인 영어 교사 3 명(모두 여자)이다. 녹음은 DAT(Digital Audio Tape)를 사용하여 녹음실에서 이루어졌다. 문장 수는 여섯 명의 화자가 30 개의 문장을 각각 네 번씩 발화하였으므로, 총 720(6×30×4) 개이다. 그리고 녹취된 발화의 분석은 PitchWorks 로 영어 ToBI 체계로 이루어졌다.

2.3 실험 과정

[실험 I]에서는 형용사, 명사 중 어느 부분이 전제되었느냐에 따라 명사구에서 초점이 실현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업 상황을 설정하여 실험 대상자들로 하여금 실험 문장을 발화하게 하였다.

A. [명사구 유형 1] : 형용사에만 협의 초점이 부여되는 경우

[명사구 1]에 해당하는 실험 문장들은 모두 실제 영어 수업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지시어들이다. 이 경우 실험 대상자들에게 교재나 답안지, 그림 등 학습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도표 1. [명사구 유형 1]의 실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Rea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b. Choose the <u>correct response</u>. c. Copy this down from the blackboard. d. Match these words and then copy them neatly. e.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u>wrong picture</u>. f. I want you to copy the questions down in your notebook. g. Use the pictures on the <u>previous page</u>. h. Let's read the conversation again. i. Fill in the blank with the word which has a <u>negative meaning</u>. j. Don't stop in the middle of the sentence. k. Mark the <u>stressed words</u>. l. Underline the <u>formal expressions</u> in the article. m. Can you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 n. Pay attention to the <u>complex sentences</u>. o. Circle the <u>even numbers</u>. p. If there are any words you don't know, please ask. q. Find a partner who has a <u>different answer</u> from yours. r. Check the <u>indirect question</u>. s. Underline the word I'm saying. |
|---|

교실 수업 상황을 재현하였으며, 실험 대상자들로 하여금 다음의 실험 문장들을 실제 수업 상황에서 발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실제 실험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들을 섞어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실험 문장들은 도표 1에서 진하게 표시되어 있다).

B. [명사구 유형 2]: 명사에만 협의 초점이 부여되는 경우

[명사구 유형 2]에서는 실험 상황을 <Set 1>과 <Set 2>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는 실제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상황을 실험에 적용시켜 보기 위해서이다. <Set 1>의 수업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Set 1>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꽃 이름을 학습하는 것이며, 이때 실험 대상자(교사)는 꽃 그림을 학습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그림에는 그 특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꽃이 하나씩 그려져 있는데 꽃 이름은 쓰여있지 않은 상태이다. 실험 대상자가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여줄 때에는 동시에 아래의 문장들을 발화하면서 꽃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하게 된다. 단, 실험대상자는 문장들을 발화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꽃 이름을 잘 듣고 외우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실험 대상자들로 하여금 실제 수업을 그대로 재현하여 발화하도록 요청하였다.

도표 2-1. [명사구 유형 2]의 실험 문장

a. Here's a <u>small daffodil</u> .	d. Here's a <u>huge violet</u> .
b. Here's a <u>long lily</u> .	e. Here's a <u>short rosemary</u> .
c. Here's a <u>tiny daisy</u> .	

<Set 2>의 수업 상황은 실험 대상자(교사)가 학생들이 채소, 탈 것, 학용품, 장소, 주방용품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때 실험 대상자는 각 주제에 속한 여러 예들이 그려진 그림을 사용하게 된다. 가령 실험 대상자는 학생들에게 큰 종이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종이에 carrot, cucumber, cabbage, potato, bean과 같은 여러 채소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이 채소들은 모두 같은 색깔로 그려져 있고, 이름은 쓰여 있지 않은 상태이다. 나머지 탈 것, 학용품, 장소, 주방용품들도 각 주제별로 종이 한 장씩에 나누어 그려져 있는데, 같은 주제에 속한 예들은 모두 같은 색깔이다. 실험대상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중에서 하나의 그림을 지적하도록 하여, 단어의 학습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실험 대상자는 실제 수업에서 하듯이 발화하게 된다. 도표 2는 실험 대상자들이 발화한 실험 문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도표 2-2. [명사구 유형 2]의 실험 문장

	채소	탈 것	학용품	장소	주방 용품
종이 한 장에 함께 그려진 그림들	green carrot green cucumber green cabbage green potato green bean	blue bicycle blue train blue subway blue airplane blue ambulance	gray ruler gray eraser gray crayon gray notebook gray stapler	brown bakery brown bank brown restaurant brown library brown hospital	yellow plate yellow bowl yellow knife yellow spoon yellow napkin
지시 문장 (실험 문장)	f. Point out the <u>green bean</u> .	g. Point out the <u>blue ambulance</u> .	h. Point out the <u>gray ruler</u> .	i. Point out the <u>brown library</u> .	j. Point out the <u>yellow bowl</u> .

C. [명사구 유형 3] : 형용사와 명사 모두에 광의 초점이 부여되는 경우

[명사구 유형 3]의 수업 상황은 학생들이 동물과 색깔, 옷과 무늬를 복습하는 것이다. 실험 대상자(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실험 문장들 내에 있는 사물이 각각 그려진 그림들을 한꺼번에 제시하여 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시 문장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서도 실험 대상자들은 실험 문장들을 실제 수업에서 하듯이 발화하게 된다. 도표 3은 실험 대상자들이 발화한 실험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도표 3. [명사구 유형 3]의 실험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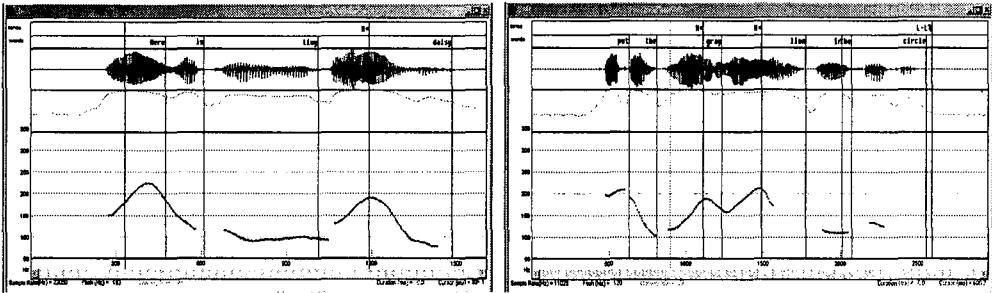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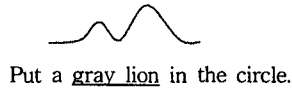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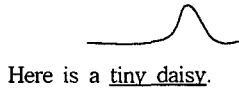
a. Put a <u>yellow rabbit</u> in the circle.	f. Pick out a <u>plain robe</u> from the bureau.
b. Put a <u>red bear</u> in the circle.	g. Pick out <u>striped jeans</u> from the bureau.
c. Put a <u>brown bird</u> in the circle.	h. Pick out a <u>checked dress</u> from the bureau.
d. Put a <u>gray lion</u> in the circle.	i. Pick out a <u>dotted blouse</u> from the bureau.
e. Put a <u>blue dog</u> in the circle.	j. Pick out the <u>flowery underwear</u> from the bureau.

2.4 [실험 1]의 결과

2.4.1 영어 모국어 교사들의 발화 분석 결과

[실험 1]의 발화 분석 결과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형용사와 명사 중 초점이 오는 어휘에만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형용사, 명사 둘 다에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면서 음역(pitch range)의 차이로 초점이 오는 곳을 구별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음역의 차이를 중요한 초점 실현 단서로 간주하여 대표적인 피치 곡선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한편 초점이 부여된 곳에 나타나는 피치 악센트의 유형으로, 형용사나 명사 어느 한 쪽에 악센트가 오는 경우에 H*, L+H* 등이 출현하거나, 형용사와 명사 둘 다에 피치 악센트가 오는 경우에는 H* H*, H* !H*와 L* H*등이 출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 여기서 L* H*의 피치 악센트 유형은 간혹 나타나는 것이며 [실험 1]의 결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았다. 이처럼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다양한 피치 악센트의 유형들을 보여주었는데, 표 1에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발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피치 악센트의 유형과 대표적인 피치 곡선(pitch contour)들을 제시하였다.

1-3 P 3: 명사에만 피치 악센트가 있는 유형 1-4 P 4: 형용사, 명사 모두에 피치 악센트가 오지만, 명사의 음역이 형용사보다 높은 유형



1-5 P 5: 형용사, 명사 모두에 피치 악센트가 오며, 형용사, 명사의 음역이 비슷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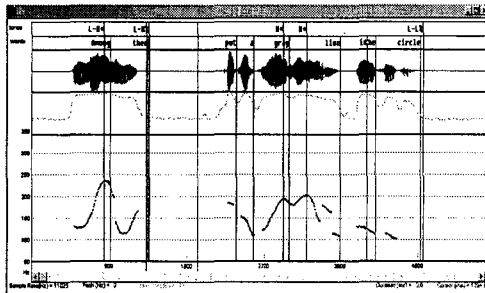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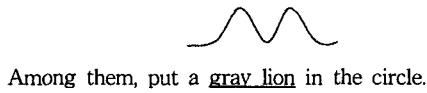


그림 1. 영어 모국어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피치 곡선 유형 그림

표 2, 3, 4는 각각 [명사구 유형 1, 2, 3] 에 따른 영어 모국어 교사들의 초점 실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명사구 유형 1]의 결과 (단위: %)

	P 1	P 2	P 3	P 4	P 5
피험자 1	10	45	.	3	42
피험자 2	.	25	.	4	71
피험자 3	50	24	.	2	24
평균	20	31.3	.	3	45.7

표 2를 살펴보면, 형용사에 협의의 초점을 부여하는 [명사구 유형 1]의 경우에 영어 모국어 교사들은 형용사에만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거나(평균 20%), 형용사와 명사 둘 다에 피치 악

센트를 주더라도 형용사의 음역을 명사보다 크게 함으로써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평균 31.3%). 또한, 수업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인지 형용사와 명사를 똑같이 강조하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평균 45.7%).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어 모국어 교사들의 경우 형용사에 초점이 주어졌을 때, 명사에만 피치 악센트를 주거나 명사의 음역이 형용사보다 큰 경우는 유의미하게 적었다(평균 3%)는 사실이다.

표 3. [명사구 유형 2]의 결과 (단위: %)

	P 1 	P 2 	P 3 	P 4 	P 5 
피험자 1	·	6	39	13	42
피험자 2	6	13	·	53	28
피험자 3	·	23	·	15	62
평균	2	14	13	27	44

명사에만 협의 초점을 부여되는 [명사구 유형 2]의 경우에는 명사에만 피치 악센트가 오거나, 형용사와 명사 둘 다에 피치 악센트가 있긴 하지만 명사의 음역이 형용사보다 높은 두 종류의 패턴이 전체 발화의 40%를 차지하였다. 또한 형용사와 명사 모두에 피치 악센트가 오고 음역 역시 비슷한 경우가 전체 발화의 44%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형용사에만 피치 악센트를 주거나, 형용사의 음역을 명사보다 크게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16%), 형용사에만 협의 초점이 주어졌을 때 명사부분이 더 강조된 경우보다는(3%) 상당히 늘어난 수치를 보인다.

표 4. [명사구 유형 3]의 결과 (단위: %)






	P 1 	P 2 	P 3 	P 4 	P 5 
피험자 1	·	10	10	27	53
피험자 2	6	9	·	47	38
피험자 3	·	77	·	·	23
평균	2	32	3.3	24.7	38

표 4를 보면 명사구 전체에 광의 초점이 주어진 [명사구 유형 3]에서는, 형용사와 명사 모두에 피치 악센트가 오며 두 단어의 음역이 비슷한 경우가 평균적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형용사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나 명사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도 각각 34%, 28%를 차지하여 크게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실험 1]의 영어 모국어 교사들의 발화 분석을 종합해보면, 피험자들이 의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대체로 반영하고는 있지만 교실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형용사, 명사 모두를 강조하는 경우가 전체 발화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사구 유형 1, 2, 3]에서 이처럼 형용사, 명사 모두에 피치 악센트를 주고 비슷한 정도의 음역으로 강조하는 P 5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경계나 중간구(intermediate phrase) 경계를 뚫으로써 각각 단어를 명확히 해주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2.4.2 한국인 교사들의 발화 분석 결과

한국인 교사들의 발화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명사구에서의 초점의 위치와 상관없이 형용사에만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거나, 형용사, 명사 둘 다에 피치 악센트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5는 한국인들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피치 곡선 유형들을 정리한 것이며 표 6, 7, 8은 실험 결과를 도표화한 것이다. 이 표들을 살펴보면 한국인 교사들은 영어 모국어 교사들보다 다양한 피치 곡선 유형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 피치 곡선 유형들은 나타나는 일관성이 적고 화자별 특성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령, P 4와 5는 피험자 3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반대로 P 7은 피험자 3에게서만 나타난다. 또한 P 6은 형용사, 명사 모두에 광의 초점이 주어졌을 때 한국인 화자들이 사용하는 패턴으로, 다른 명사구 유형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 형용사와 명사 모두가 전제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P 6에서는 Pierrehumbert & Hirshberg(1990)에 의하면 보통 구정보(old information)를 나타내주는 L*로써 형용사와 명사가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는 한국인 화자들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피치 악센트와 피치 곡선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형용사, 명사 둘 다에 H*를 부여하는 경우 음역의 차이를 주는 유형 역시 찾아볼 수 있다.

표 5. 한국인 교사들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피치 곡선의 유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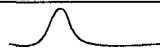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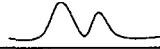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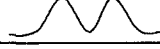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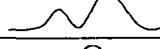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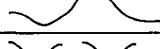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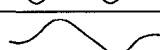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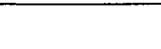
	피치악센트 실현 양상 (형용사 + 명사)	피치 곡선의 유형	
P 1	H*	형용사에만 피치 악센트	
P 2	H* H*	형용사의 음역이 명사보다 높은 유형	
P 3	H* H*	형용사와 명사의 음역이 비슷한 유형	
P 4	H* H*	명사의 음역이 형용사보다 높은 유형	
P 5	L* H*		
P 6	L* L*		
P 7	H* L*		

그림 2는 표 5에서 제시된 P 1, 2, 3의 피치 곡선 유형의 그림들을 보여준다.

2-1 P 1: 형용사에만 피치 악센트가 있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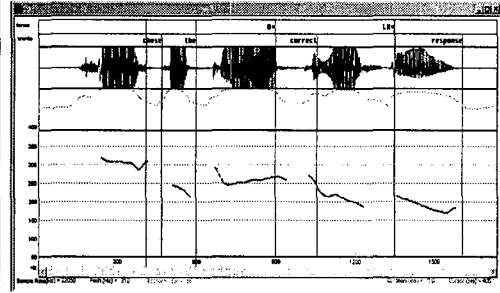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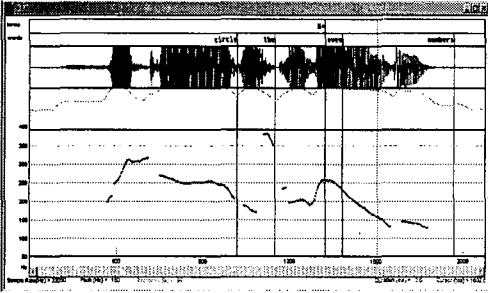
2-2 P 2: 형용사, 명사 모두에 피치 악센트가 오지만, 형용사의 음역이 명사보다 높은 유형



Circle the even numbers.



Choose the correct response.



2-3 P 3: 형용사, 명사 모두에 피치 악센트가 오며, 형용사, 명사의 음역이 비슷한 유형



Put a yellow rabbit in the cir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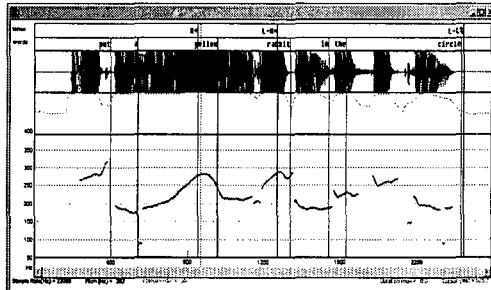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인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피치 곡선 유형 그림

표 6, 7, 8은 각 명사구 유형에 따른 한국인 교사들의 초점 실현 결과를 나타낸다.

표 6. [명사구 유형 1]의 결과 (단위: %)

	P 1	P 2	P 3	P 4	P 5	P 6	P 7
피험자1	42.5	32.5	25
피험자2	37.5	32.5	15	5	10	.	.
피험자3	18	49	23	.	.	.	10
평균	32.7	38	21	1.7	3.3	.	3.3

표 7. [명사구 유형 2]의 결과 (단위: %)

	P 1	P 2	P 3	P 4	P 5	P 6	P 7
피험자 1	46	35	19
피험자 2	2.5	2.5	35	37.5	22.5	.	.
피험자 3	10	67.5	22.5
평균	19.5	35	25.5	12.5	7.5	.	.

표 8. [명사구 유형 3]의 결과 (단위: %)

	P 1	P 2	P 3	P 4	P 5	P 6	P 7
피험자 1	45	5	25	.	17.5	7.5	.
피험자 2	12.5	65	12.5	.	.	10	.
피험자 3	3	26	10	.	.	23	38
평균	20.2	32	15.8	.	5.8	13.5	12.7

표 6, 7, 8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 교사들의 발화에서 비중 있게 나타나는 피치 곡선의 유형은 P 1, 2,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인 교사들은 초점이 어디에 부여되느냐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강조하거나, 형용사와 명사 들을 같은 정도로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느 명사구 유형에서나 형용사에만 피치 악센트를 주거나 형용사의 음역이 명사보다 큰 경우를 합친 수치가 평균적으로 50%가 넘으며, 형용사와 명사 양쪽의 음역이 비슷한 경우는 20% 가량 된다.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사에 협의 초점이 부여되는 [명사구 유형 2]의 경우이다. 명사에만 초점을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인 교사들은 오히려 형용사에만 피치 악센트를 주는 경우가 19.5%, 그리고 형용사의 음역이 명사보다 큰 경우가 35%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실험 I]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한국인 교사들은 정보구조를 반영하여 초점을 적절하게 실현시키는 능력이 영어 모국어 교사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3. 실험 II

3.1 실험 목적

[실험 II]에서는 [실험 I]과 달리 전제가 되는 부분을 선행 문장에서 가시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전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화자로 하여금 [실험 I]보다 분명히 인식하게 했을 때(도표 4, 5, 6의 실험 문장 참조), 초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실험 I]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 교사들이 정보 구조를 인식하고도 실현 자체를 못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였다.

3.2 실험 대상 및 방법

실험 대상은 [실험 I]에 참여했던 영어 모국어 교사 3 명과 한국인 영어 교사 3 명이 동일하게 [실험 II]에 참여하였다. 실험 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문장들을 수업 시간에 하듯이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하였으며, 녹음은 DAT(Digital Audio Tape)를 사용하여 녹음실에서 이루어졌다. 문장 수는 여섯 명의 화자가 15 개의 문장을 각각 네 번씩 발화하였으므로, 총 360 (6×15×4) 개이다. 녹취된 발화의 분석은 [실험 I]에서와 똑같이 PitchWorks로 영어 ToBI 체계로 이루어졌다.

3.3 실험 절차 및 자료

도표 4, 5, 6에서 [실험 II]에 사용된 실험 문장들을 제시하였다. 각 실험 문장들은 쌍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명사구 유형 1, 2]의 실험 문장 쌍 중 선행 문장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전제되어 있다. 가령 도표 4의 실험 문장 쌍에서는 선행 문장에 명사가 전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의 [형용사+명사] 명사구에서는 형용사만이 초점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도표 5의 실험 문장 쌍에서는 선행 문장에 형용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의 [형용사+명사] 명사구에서는 명사만이 초점을 받게 된다. 한편 도표 6의 [명사구 유형 3]의 실험 문장 쌍에서는 앞 문장에 구체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형용사와 명사 모두가 초점을 받게 된다.

A. [명사구 유형 1]: 형용사에만 협의 초점이 부여되는 경우

도표 4. [명사구 유형 1]의 실험 문장

- a. There are some **pictures** on the handout.
You should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wrong picture**.
- b. Complete the stories on **page** 50 using pictures.
You can use the pictures on the **previous page**.
- c. There are some **responses** on the answer sheet.
You should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response**.
- d. Each word has some **meaning**.
You should mark the word which has a **negative meaning**.
- e. Now, all of you have your own **answers**.
Find a partner who has a **different answer** from yours.

B. [명사구 유형 2]: 명사에만 협의 초점이 부여되는 경우

도표 5. [명사구 유형 2]의 실험 문장

- a. I will show you some pictures of **green** vegetables.
Point out a **green bean** among them.
- b. There are some pictures of **blue** vehicles in the box.
Point out a **blue ambulance** among them.
- c. Some school supplies are painted **gray** on each paper.
Point out a **gray ruler** among them.
- d. Some places are painted **brown** on papers.
Point out a **brown library** among them.
- e. Here are some pictures of **yellow** kitchen things.
Point out a **yellow bowl** among them.

C. [명사구 유형 3]: 형용사와 명사 모두에 광의 초점이 부여되는 경우

도표 6. [명사구 유형 3]의 실험 문장

a. Here are pictures of various colors and kinds of animals. Among them, put a red bear in the circle.
b. You can see pictures of various colors and kinds of animals. Among them, put a brown bird in the circle.
c. I will show you pictures of various colors and kinds of animals. Among them, put a gray lion in the circle.
d. We are going to review the patterns and kinds of clothes. Pick out a plain robe from the bureau.
e. I am going to check whether you have memorized the patterns and kinds of clothes. Pick out a dotted blouse from the bureau.

3.4 [실험 II]의 결과

3.4.1 영어 모국어 교사의 발화 분석 결과

표 9, 10, 11에 제시된 P 1, 2, 3, 4, 5는 표 1에서 분류한 피치 곡선 유형들에 대한 패턴들과 동일한 것이다.

표 9. [명사구 유형 1]의 결과 (단위: %)











	P 1 	P 2 	P 3 	P 4 	P 5 
피험자 1	25	56	.	.	19
피험자 2	36	.	.	.	64
피험자 3	15	23	.	.	62
평균	25.4	26.3	.	.	48.3






표 9, 10, 11을 살펴보면, 영어 모국어 교사들은 [실험 I]에 비해 [실험 II]에서 초점을 제대로 실현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9에서 [실험 II]의 [명사구 유형 1]의 경우에는 [실험 I]과 비교하여 별다른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명사구 유형 1]의 경우 명사를 강조하는 P 3이나 4가 [실험 I]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 II]에서도 [실험 I]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형용사에만 피치 악센트를 주거나 형용사의 음역이 명사보다 높은 두 종류의 패턴이 전체 발화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51.7%),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와 명사 모두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48.3%).

표 10. [명사구 유형 2]의 결과 (단위: %)

	P 1 	P 2 	P 3 	P 4 	P 5 
피험자 1	.	.	6	88	6
피험자 2	.	13	.	47	40
피험자 3	.	.	.	58	42
평균	.	4.3	2	64.3	29.3

명사에만 협의 초점이 오는 경우, 형용사의 음역을 명사보다 높게 하는 비율이 14%에 달했던 [실험 I]에서와 달리, [실험 II]에서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비율이 4.3%으로 줄어들고, 대신 명사의 음역이 형용사보다 높은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64.3%). 게다가 이 경우 형용사, 명사 음역이 비슷한 P 5의 비율은 [실험 I]에 비해 15%가량 감소하였다.

표 11. [명사구 유형 3]의 결과 (단위: %)

	P 1 	P 2 	P 3 	P 4 	P 5 
피험자 1	·	20	·	10	70
피험자 2	·	6	·	65	29
피험자 3	·	17	·	33	50
평균	·	14.3	·	36	49.7

마지막으로 표 11에서 [명사구 유형 3]의 경우에는 [실험 I]과 달리 어느 한쪽에만 피치 악센트가 오는 P 1, 3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형용사와 명사의 음역이 비슷한 P 5는 10%가량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실험 II]에서는 [실험 I]에 비해 P 2의 비율이 17.7% 줄어들고 대신 P 4의 비율이 1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add(1996)에 의하면 'five francs'와 같은 명사구 전체가 광의 초점을 받는 경우 명사 부분에 악센트가 부여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명사만 협의 초점을 받는 경우와의 중의성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의 표 10, 11을 살펴보면 [명사구 유형 2]와 [명사구 유형 3]의 결과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사구 유형 3]의 결과를 살펴볼 때, [실험 I]에 비해 [실험 II]에서 형용사 부분을 강조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명사 부분을 강조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런 발화가 증가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실험 II]의 결과로부터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정보구조를 반영하여 초점을 적절히 실현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따라서 초점을 받게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화자가 그 부분만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한다면, 초점을 제대로 실현시키는 비율 역시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3.4.2 한국인 교사의 발화 분석 결과

표 12, 13, 14에 제시된 P 1, 2, 3, 4, 5, 6, 7은 표 5에서 분류한 피치 곡선 유형들에 대한 패턴들과 동일한 것이다.

표 12. [명사구 유형 1]의 결과 (단위: %)








	P 1 	P 2 	P 3 	P 4 	P 5 	P 6 	P 7 
피험자 1	47	47	6	·	·	·	·
피험자 2	50	35	10	·	5	·	·
피험자 3	10	55	15	·	·	·	20
평균	35.7	45.7	10.3	·	1.7	·	6.7

표 13. [명사구 유형 2]의 결과 (단위: %)















	P1 	P2 	P3 	P4 	P5 	P6 	P7 
피험자 1	84	11	·	5	·	·	·
피험자 2	·	15	50	35	·	·	·
피험자 3	·	·	·	·	·	·	100
평균	28	8.7	16.7	13.3	·	·	33.3

표 14. [명사구 유형 3]의 결과 (단위: %)

	P1 	P2 	P3 	P4 	P5 	P6 	P7 
피험자 1	67	11	·	·	5.5	16.5	·
피험자 2	10	70	15	5	·	·	·
피험자 3	·	·	·	·	·	17	83
평균	25.6	27	5	1.7	1.8	11.2	27.7

[실험 II]에서 한국인들은 형용사, 명사간의 상대적인 정보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용사에만 피치 악센트를 주거나, 형용사의 음역을 명사보다 높게 실현시킨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실험 II]에서 [명사구 유형 2]와 [명사구 유형 3]의 경우 형용사를 강조하는 비율이 [실험 I]보다 약간 감소함과 동시에, 피험자들 나름대로 정보구조에 맞게 초점을 실현시키려는 시도가 다양한 억양 형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명시적으로 전제가 주어졌을 때는 [명사구 유형 2]와 [명사구 유형 3]의 초점 실현을 위해 P 4, 5, 6, 7과 같은 유형의 사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억양 형태들이 나타나는 양상은 일관적이지 못하며, 개인에게 국한된 경우가 많아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결국 [실험 II]에서 전제가 명시적으로 주어졌을 때 한국인들이 초점을 적절히 실현해내는 비율이 [실험 I]에 비해 유의미할 정도의 증가를 보인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 II]의 결과는, 한국인 교사들이 비록 문장 내에서 어느 부분의 의미 비중이 큰 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초점을 실현하는 자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3과 4는 각각 영어 모국어 화자들과 한국인 화자들이 [실험 I, II]에서 평균적으로 어떤 억양 패턴을 주로 사용하였는지를 나타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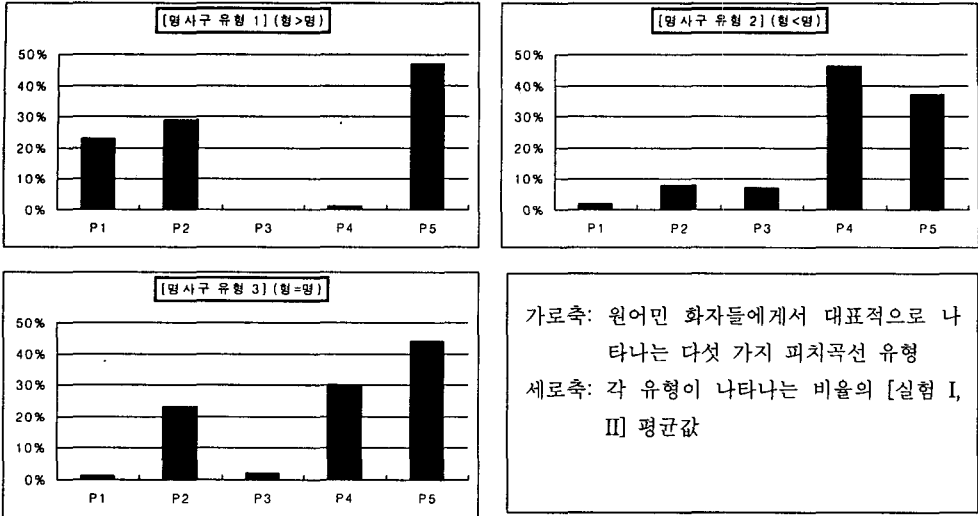


그림 3. 영어 모국어 교사가 주로 사용한 피치 곡선 유형

그림 3을 살펴보면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경우 [명사구 유형 1]에 있어서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P 1, 2를 합친 비율이 가장 높고, [명사구 유형 2]에 있어서는 명사를 강조하는 P 3, 4를 합친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명사구 유형 3]에 있어서는 P 1, P 2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으며 P 2, P 4, P 5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P 4, P 5는 명사구 전체의 광의 초점을 실현하는 자연스런 발화에 해당한다. 그림 3은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초점 실현 양상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초점 실현은 대체로 정보 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어 모국어 교사들의 발화에서도 [명사구 유형 1, 2]의 경우 P 5의 비율이 높은 점과 [명사구 유형 3]에서 P 2가 높게 나타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요약 및 논의 부분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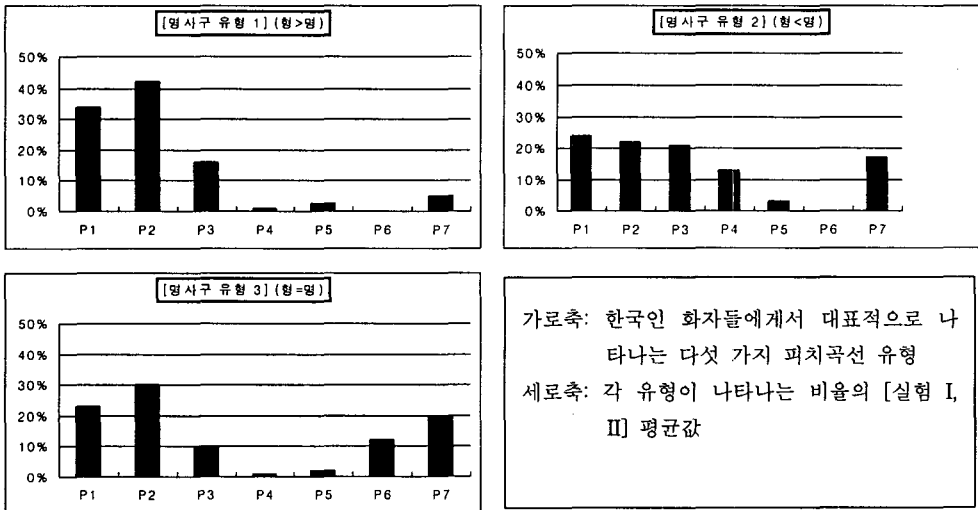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인 교사가 주로 사용한 피치 곡선 유형

그림 4를 살펴보면 한국인 화자들의 경우 초점 위치에 따른 명사구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형용사를 강조하는 P 1, 2가 가장 높은 비율로 출현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초점 실현에 반영하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발화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가령 [명사구 유형 2]의 결과에서 명사구의 음역이 형용사보다 큰 P 4의 비율이 다른 명사구 유형에서보다 증가하여 어느 정도 초점 실현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P 1, 2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명사구 유형 3] 역시 P 1, 2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에 비해 정보 구조를 반영한 초점 실현에 해당하는 P 3, 4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보 구조와 무관한 P 6, 7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초점을 구현하려는 피험자들 나름의 노력으로 보여진다.

4. 실험 III

4.1 실험 목적

영어 모국어 교사들과 한국인 교사들의 발화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유형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지각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실험 III]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발화 실험 결과 교실 상황에서는 음역의 차이로써 초점을 실현하는 양상이 비중 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 시험인 [실험 III]에서는 음역의 차이를 두는 발화가 실제로는 어떻게 인식되는지 증점을 두어 확인하려고 하였다.

4.2 실험 방법과 자료 및 대상

[실험 I]과 [실험 II]에서 피험자들의 발화를 분석한 결과, 영어 모국어 교사들의 발화에서는 일관되게 다섯 가지 정도의 피치 곡선 유형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교사들의 발화에서는 세 가지 피치 곡선 유형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단, [실험 I]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는 대략 30 Hz. 음역 차이를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에 따라 형용사의 음역이 명사보다 높은 유형이나, 명사의 음역이 형용사보다 높은 유형을 분류하였다. [실험 III]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피치 곡선 유형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인식되는지를 알아 보게 된다.

[실험 III]에서는 영어 모국어 교사, 한국인 교사 그룹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피치 곡선 유형별로 네 문장씩을 뽑아 DAT 녹음기에 녹음한 후, 이 문장들을 다섯 명의 영어 모국어 교사들(K 대학교 영어 강사, 남자 4명 여자 1명, 모두 미국인)과 세 명의 한국인 학생들(K 대학교 재학, 남자 2명 여자 1명)에게 들려주었다. 한국인 학생들은 TOEIC 600-900 점 대의 중상위권 학생들이었다. 피험자들은 이들 문장들을 듣고, 문장내의 명사구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즉 상대적으로 돌출리게 인식되는 부분을 체크하게 된다. 도표 7은 피험자들에게 제공된 문제의 한 예이다. 실제로는 32 문제(여덟 유형×네 문장)가 제시되었다(전체 문제지는 부록 참고).

도표 7. 실험 문제의 예

Pay attention to the complex sentences.

① **complex** sentences

② complex sentences

③ **complex** sentences


4.3 실험 III의 결과











표 15는 각 유형에 대한 인지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표 15. 인지 실험 결과

영어 모국어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인지실험 결과						
유형	영어 모국어 피험자 응답률			한국인 피험자 응답률		
	형용사	명사	명사구 전체	형용사	명사	명사구 전체
	20/20 (100%)	0	0	12/12 (100%)	0	0
	16/20 (80%)	1/20 (5%)	3/20 (15%)	10/12 (84%)	1/12 (8%)	1/12 (8%)
	2/20 (10%)	17/20 (85%)	1/20 (5%)	2/12 (17%)	10/12 (83%)	0
	7/20 (35%)	11/20 (55%)	2/20 (10%)	3/12 (25%)	9/12 (75%)	0
	6/20 (30%)	1/20 (4%)	13/20 (65%)	3/12 (25%)	2/12 (17%)	7/12 (58%)
한국인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인지실험 결과						
유형	영어 모국어 피험자 응답률			한국인 피험자 응답률		
	형용사	명사	명사구 전체	형용사	명사	명사구 전체
	18/20 (90%)	1/20 (5%)	1/20 (5%)	10/12 (83%)	0	2/12 (17%)
	11/20 (55%)	1/20 (5%)	8/20 (40%)	9/12 (75%)	1/12 (8%)	2/12 (17%)
	9/20 (45%)	7/20 (35%)	4/20 (20%)	6/12 (50%)	4/12 (33%)	2/12 (17%)

인지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형용사나 명사 중 어느 한 쪽에만 피치 악센트가 오는 유형은 그 부분에 초점이 주어진 것으로 정확히 인지되는 비율이 영어 모국어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발화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에 비해 유형, 유형과 같이 형용사나 명사의 음역 차이를 둔 경우 피험자들이 그 들들린 부분을 인식해내는 비율은 초점을 받지 않는 부분을 확실히 악센트 해지(deaccenting)시킨 경우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유형과 한국인 발화에 대한 실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유형은 명사구 전체가 광의 초점을 받았다고 인지되거나, 발화의 전반적인 하강현상(declination)으로 인해 명사 부분이 돌돌리는 것으로 인지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본 연구의 실험에서 이와 같이 인지되는 비율은 영어 모국어 화자의 발화에 대해서 평균 72%, 한국인 발화에 대해서 평균 52.5%였다.

피치 악센트 측면에서 본다면 형용사나 명사 어느 한쪽에만 정확히 피치 악센트가 부여된 유형이 양쪽의 음역 차이가 있는 유형보다 형용사나 명사로 인지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형용사와 명사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유형이 명사로 인지되는 비율은  유형이 형용사로 인지되는 비율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유형,  유형을 형용사로 인지해내는 비율이  유형,  유형을 명사로 인지해내는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사항은  유형,  유형,  유형에 대한 응답 가운데에는 형용사가 돌돌리게 들린다고 답한 피험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유형을 형용사로 인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37.5%에 달했다. 이는 발화실험에서도 교사들이 형용사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에 관해서는 요약 및 논의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발화에 있어서는 영어 모국어 교사들의 발화가 한국인 교사들의 발화보다 대체로 더 일관성 있게 인지되고 있는 반면에, 인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와는 대조적인 현상이 발견된다. 즉, 각 유형에서 어느 부분이 돌돌리는지 정확히 인지해낸 비율이 한국인 학생들의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더 높았을 뿐더러, 특히  유형,  유형과 같이 피치 음역 차이를 인지해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인 피험자들이 이를 각각 형용사, 명사로 인지해낸 비율이 영어 모국어 피험자들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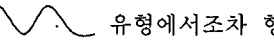
5.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실험을 통해 [형용사+명사] 명사구의 초점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실험 결과 및 논의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종합적인 실험 결과를 영어 모국어 교사들과 한국인 교사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경우 [실험 I]의 [명사구 유형 1, 2]에서 형용사, 명사 정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고려하여 피치 악센트나 음역의 차이를 둬으로써, 명사구의 초점을 적절히 실현시키는 비율이 전체 발화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형용사나 명사 모두를 같은 정도로 강조하는 비율이 또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어 모국어 교사들은 형용사에 협의 초점이 주어졌을 때 명사에만 피치 악센트를 주거나 명사의 음역이 더 높은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명사에 협의 초점이 주어졌을 때는 형용사에만 피치 악센트를 주거나 형용사의 음역이 더 높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는 것이다. 결국 영어 모국어 교사들의 발화에서 비록 형용사나 명사 모두를 강조하는 경우가 상당 수 나타나기는 하지만, 초점 실현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실험 II]에

서 전체가 명시적으로 주어졌을 때는 전체 여부에 따른 정보구조를 반영하여 초점을 실현시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실험 I]과 [실험 II]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영어 모국어 교사들은 정보구조를 반영하여 초점을 실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실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형용사, 명사 모두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인 교사들의 경우에는, 전체의 여부에 따른 정보구조와 무관하게 대개 형용사를 강조하거나, 형용사나 명사 모두를 같은 정도로 강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화자별로 독특한 억양 곡선의 유형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초점 실현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화자 개인에게 굳어진 영어 억양형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한국어 교사들의 발화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부분은 일관되게 형용사를 강조하는 유형이다. 가령 명사에만 협의 초점이 부여되는 [명사구 유형 2]에 대한 발화 실험을 살펴보면, 한국인 교사들이 형용사에만 피치 악센트를 주거나 형용사의 음역을 명사보다 높게 발화하는 경우가 [실험 I]과 [실험 II]를 통해 평균적으로 22.8%에 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지 실험을 통해 이와 같은 유형은 대체로 형용사로 인식됨이 확인되었는데, 명사를 강조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형용사를 강조하는 경우가 이 정도 비율에 달한다는 사실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전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적어도 교실 상황에서는 [형용사+명사] 명사구에서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영어 모국어 교사와 한국인들의 발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명사에만 협의 초점이 오거나 명사구 전체에 광의 초점이 오는 경우에 대체로 정보구조를 반영시켜 일관적으로 발화함에도 불구하고, 형용사의 음역이 명사보다 높은 유형은 항상 나타나고 있다. 인지 실험에서도  유형,  유형을 형용사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들보다 높은 것이 쉽게 확인된다. 심지어는  유형,  유형,  유형에서조차 형용사가 돌돌리게 인지된다고 답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경우 영어 모국어 교사들의 실험 문장 발화를 살펴본 결과 비록 형용사의 음역은 낮더라도 형용사의 음의 길이(duration)가 비교적 길거나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억양구나 중간구 경계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형용사를 두드러지게 발화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볼 때, 교실 상황에서는 [형용사+명사] 구에서 명사보다는 형용사가 강조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인 교사들이 초점의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형용사에만 피치 악센트를 주거나 형용사의 음역을 높게 발화하는 것은, 수업 상황에서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형용사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인들은 인지 시에는 형용사와 명사를 잘 구별하는데, 발화 시에만 형용사를 일관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인지 실험에서 한국인 피험자들이  유형을 제대로 인식해내는 비율은 영어 모국어 피험자들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영어 모국어 교사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실 상황이라는 점이 이런 현상을 일부 설명해줄 수는 있겠지만, 한국인 교사들이 습관적으로 형용사를 강조하여 발화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모국어 전이(L1 transfer)나, 문장 리듬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overgeneralization)등과 같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영어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Ladd(1996)에 의하면 발화에서 전제된 부분, 즉 초점을 받지 않는 부분의 악센트가 해지되는 것은 영어에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실험 결과로 미루어볼 때 영어 모국어 교사들은 정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반영한 초점 실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실 상황이라는 특수한 제약 조건 때문에 [형용사+명사]의 명사구에서 형용사, 명사 모두를 같은 정도로 강조하거나 또는 음역 차이를 두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영어 모국어 피험자와 한국인 피험자 모두 확실히 악센트 해지를 둔 발화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며, 한국인 학생들 역시 영어 문장에서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지 정확히 인지해낼 수 있다는 인지 실험의 결과를 볼 때, 이러한 교수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영어 교육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게다가 본 연구의 인지 실험에서는 피치 음역의 차이를 두는 발화를 한국 학생들이 훨씬 잘 인지해내는 결과 또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하나로 이런 식의 발화가 오히려 한국 학생들에게 더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교실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해 인위적으로 강조된 발화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영어를 접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상황이라고 무조건 모든 내용을 강조하기보다는 정보구조를 반영하여 적절히 초점을 실현시켜 발화하는 것이 영어 교육에 있어 더 바람직한 제안일 것이다. 한편 한국인 화자들의 경우에는 초점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 적절한 억양을 구현하는 자체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공은정. 2002. *영어 억양 음운론과 정보 구조에 따른 초점부사의 억양 실현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호. 1999. "억양 음운론의 소개." *음성과학*, 6, 119-143.
- 김민정. 2000. *영어의 초점과 악센트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2002. *초점과 정보 구조에 따른 영어 억양 실현 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linger, D. 1972. "Accent is predictable (if you're a mind-reader)." *Language*, 48, 633-644.
- Gussenhoven, C. 1983. "Focus, mode, and the nucleus." *Journal of Linguistics*, 19, 377-417.
- Halliday, M. A. K. 1967. *Intonation and Grammar in British English*. Mouton.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Ladd, D. R. 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man, S. 1946. "On the stress system of English." *Ward*, 2, 171-187.
- Pierrehumbert, J. B.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ndiana.
- Pierrehumbert, J. B. & J. Hirschberg.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 in P. R. Cohen, J. Moregan, & M. E. Pollock(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A: MIT press. 271-311.

접수일자: 2002. 4. 25.

게재결정: 2002. 6. 8.

▲ 전지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jlm72@hanmail.net

▲ 송재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jaeyungsong@hotmail.com

▲ 이동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shake-speare@hanmail.net

▲ 김기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keehokim@korea.ac.kr

<부 록> 인지 실험 문제

1. Point out a gray ruler among them.
 - ① **gray** ruler
 - ② gray **ruler**
 - ③ **gray ruler**
2. Point out a blue ambulance among them.
 - ① **blue** ambulance
 - ② blue **ambulance**
 - ③ **blue ambulance**
3. Point out a green bean among them.
 - ① **green** bean
 - ② green **bean**
 - ③ **green bean**
4. Here's a tiny daisy.
 - ① **tiny** daisy
 - ② tiny **daisy**
 - ③ **tiny daisy**
5. Point out a brown library among them.
 - ① **brown** library
 - ② brown **library**
 - ③ **brown library**
6. Here's a short rosemary.
 - ① **short** rosemary
 - ② short **rosemary**
 - ③ **short rosemary**
7. Pay attention to the complex sentences.
 - ① **complex** sentences
 - ② complex **sentences**
 - ③ **complex sentences**
8.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wrong picture.
 - ① **wrong** picture
 - ② wrong **picture**
 - ③ **wrong picture**
9. Mark the stressed words.
 - ① **stressed** words
 - ② stressed **words**
 - ③ **stressed words**
10. Here's a tiny daisy.
 - ① **tiny** daisy
 - ② tiny **daisy**
 - ③ **tiny daisy**
11. Use the pictures on the previous page.
 - ① **previous** page
 - ② previous **page**
 - ③ **previous page**
12. You should mark the word which has a negative meaning.
 - ① **negative** meaning
 - ② negative **meaning**
 - ③ **negative meaning**
13. You can use the pictures on the previous page.
 - ① **previous** page
 - ② previous **page**
 - ③ **previous page**
14. Point out a yellow bowl among them.
 - ① **yellow** bowl
 - ② yellow **bowl**
 - ③ **yellow bowl**
15. Check the indirect question.
 - ① **indirect** question
 - ② indirect **question**
 - ③ **indirect question**
16. Circle the even numbers.
 - ① **even** numbers
 - ② even **numbers**
 - ③ **even numbers**

17. Use the pictures on the previous page.
- ① **previous page**
 - ② previous **page**
 - ③ **previous page**
18. Put a red bear in the circle.
- ① **red bear**
 - ② red **bear**
 - ③ **red bear**
19. Pick out striped jeans from the bureau.
- ① **striped jeans**
 - ② striped **jeans**
 - ③ **striped jeans**
20. Here's a small daffodil.
- ① **small daffodil**
 - ② small **daffodil**
 - ③ **small daffodil**
21. Point out the green bean.
- ① **green bean**
 - ② green **bean**
 - ③ **green bean**
22. You should mark the word which has a negative meaning.
- ① **negative meaning**
 - ② negative **meaning**
 - ③ **negative meaning**
23. Pick out a plain robe from the bureau.
- ① **plain robe**
 - ② plain **robe**
 - ③ **plain robe**
24. Find a partner who has a different answer from yours.
- ① **different answer**
 - ② different **answer**
 - ③ **different answer**
25. Point out the brown library.
- ① **brown library**
 - ② brown **library**
 - ③ **brown library**
26. Here's a short rosemary.
- ① **short rosemary**
 - ② short **rosemary**
 - ③ **short rosemary**
27. Mark the stressed words.
- ① **stressed words**
 - ② stressed **words**
 - ③ **stressed words**
28. Point out the blue ambulance.
- ① **blue ambulance**
 - ② blue **ambulance**
 - ③ **blue ambulance**
29. Use the pictures on the previous page.
- ① **previous page**
 - ② previous **page**
 - ③ **previous page**
30. Pay attention to the complex sentences.
- ① **complex sentences**
 - ② complex **sentences**
 - ③ **complex sentences**
31. Point out the green bean.
- ① **green bean**
 - ② green **bean**
 - ③ **green bean**
32. Among them, put a brown bird in the circle.
- ① **brown bird**
 - ② brown **bird**
 - ③ **brown bird**